

## 독일 좌파당의 현황과 카티아 키핑 공동대표에 대하여

/ 금민 공동편집위원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카티아 키핑Katja Kipping 독일 좌파당Die Linke 공동대표가 방한한다. 방한의 가장 큰 목적은 서울에서 열리는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에 기조 발제자로 참석하는 것이다. 카티아 키핑 대표의 기조연설은 오는 7월 9일(토) 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에서 오전 11시부터 11시 45분까지 진행된다.

이어서 7월 10일(일)에는 연세대학교 백양콘서트홀에서 오후 3~6시에 “유럽의 좌파운동과 기본소득Europäische Linke Bewegung und das Grundeinkommen”을 주제로 강연회가 열린다. 강연회 주최는 노동당이 며, 사회와 통역은 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필자가 맡는다.

이밖에도 7월 8일 오후 5시 15분부터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는



독일 좌파당 공동대표 카티아 키핑 의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서울 대회의 세션의 하나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모델”이 노동당과 독일 좌파당 기본소득위원회BAG Grundeinkommen 공동 주최로 열린다. 사회는 필자가 말으며, 안효상 『좌파』편집주간과 좌파당 기본소득위원회의 가브리엘레 슈미트Gabriele Schmidt가 발표한다.

가브리엘레 슈미트는 1960년생으로 브레멘대학에서 사회학과 경영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공공서비스노조ver.di 정책자문역을 지냈으며, 독일 아탁attac의 회원이며, 아탁이 추진하는 기본소득운동인 ‘모두에게 충분하게Genug für Alle’ 캠페인의 공동발의자다. 슈미트는 좌파당의 기본소득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기본소득운동의 주요 활동가들을 인터뷰하였다. 2012년 3월에 “2012 기본소득 국제대회 -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에 초청되어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브레멘 시의 좌파당 기초의원이기도 하다. 크리스토퍼 슈페어 등이 주요 인물인 브레멘 주 좌파당은 ‘해방좌파’ 경향이며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와 그 밖의 행사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독일 좌파당과 카티아 키핑 대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덧붙인다.

## 독일 좌파당의 현황

현재 독일 좌파당은 총 630석의 연방의회 Bundestag에서 64석을 차지하고 있는 원내 제3당이다. 연방의회 의석 비율에서 좌파당은 10%를 넘지만 주의회 차원의 선거 결과에서는 지역적 편중이 심하다. 전통적으로 좌파당은 동독의 튀링엔Türingen과 전 대표인 오스카 라퐁텐 Oskar Lafontaine의 출신 주인 서독의 자르란트Saarland에서 20%를 넘거나 근접하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독일 좌파당은 2005년 동독을 기반으로 한 민주사회당PDS의 서독 지역과 노동조합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민주당에서 이탈한 좌파정치세력이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이라는 선거연합으로 출범한 이후 2007년에 단일 정당으로 재출범했다. 그리고 2005~2012년의 시기에는 꾸준히 서독 지역에서 정치적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추세에 제동이 걸렸다. 2012년에 서독 슐레스비히-홀스타인Schleswig-Holstein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의회 선거에서 5%를 얻지 못하여 원내정당의 지위를 박탈당했으며, 2013년 서독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의회 선거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 서독 지역의 주의회에서 좌파당이 원내정당인 곳은 현재 자르란트Saarland 이외에 헤센Hessen, 브레멘Bremen, 함부르크Hamburg 등 모두 네 곳이다. 독일의 주의회 의원은 전국적으로 합산하면 총 1,845명인데 좌파당 주의원은 모두 154명으로 연방의회보다

의석 비율이 떨어진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당원은 58,989명이다. 독일의 국고보조금은 전국선거 득표수와 당 후원금 액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2015년에 좌파당은 10,959,390유로60센트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유럽의회에서 독일 좌파당은 유럽 사회민주당 이외의 좌파정당들의 연합체인 유럽좌파European Left의 일원이다.

### 카티아 키핑 대표의 정치 경력

1978년 1월 28일에 태어난 젊은 여성 정치인 카티아 키핑은 베른트 리쾡어Bernd Rixinger와 함께 독일 좌파당의 공동대표다.

키핑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작센 주의회 의원을 지냈고, 2005년에 독일 연방의회 의원이 된 이후로 2009년, 2013년 총선에서 당선되었다. 재선 의원이던 시절인 2009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독일 연방의회 노동사회상임위원회Ausschuss für Arbeit und Soziales의 위원장을 지냈다. 2012년 7월 2일 좌파당 당대회에서 67%의 찬성으로 당대표에 선출되었고, 2014년 5월 좌파당의 베를린 당대회에서는 77%의 찬성으로 당대표에 재선출되었다.

당대표가 되기 이전에도 2003년 7월에 좌파당의 전신의 하나인 민주사회당PDS 부대표로 선출된 바 있다. 현재 좌파당은 2인의 공동대표를 두고 있으며, 카티아 키핑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베른트 리쾡어는 서독의 노동조합운동을 대표한다. 리쾡어는 2016년 3월 바덴-뷔템베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좌파당 정당명부 1번으로 나섰으

나 2.9%로 참패하여 주의회 진출에 실패했다.

## 해방좌파의 발기인

당대표가 된 이후 키핑은 특정 정치그룹에 속하지 않고 있지만 ‘해방좌파Emanzipatorische Linke’(약칭 Ema.Li)의 발기인이다. ‘해방좌파’는 좌파당 안의 공개 정파이며,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분파와 전통적 사회주의 분파에 대하여 모두 거리를 둔다.

독일 좌파당 내부에는 몇 가지 정치적 경향이 있으며, 이들은 공개적인 정치그룹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다. ‘해방좌파’ 이외에 주요한 정치그룹으로 다섯 개 정도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개혁네트워크’는 당내 역관계에서 가장 오른쪽에 포진한 소수파다. 연방의회 부의장을 지낸 페트라 파우Petra Pau 의원이 개혁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인사다. 동독에서 사회민주당과 주정부 차원의 연정을 구성한 적이 있거나 연정을 계획으로 삼고 있는 주의회 의원들과 동독 지역의 주요 정치인들은 대개 이 경향에 속한다.

이와 가장 유사한 입장은 ‘민주적 사회주의를 위한 포럼’이라고 볼 수 있다. 베를린 시의원인 스테판 리비히Stefan Liebich가 현재 이 그룹의 대변인을 맡고 있다.

당내 좌파로서는 세 개의 주요한 정치그룹을 들 수 있다.

먼저, 서독 노동조합운동의 좌파를 대표하는 ‘사회주의 좌파’가

있다. 이 경향의 대표적 인물은 사회민주당의 수상 후보이자 전 대표,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의 대표, 좌파당 원내대표와 대표로 정치 경력을 이어온 오스카 라퐁텐이며, 그밖에 과거 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 유명했던 부터베게Christoph Butterwege도 주요한 인물이다. 현재 좌파당 공동대표의 하나인 리썬어도 굳이 따지자면 이 경향에 가깝다.

둘째, 부유세,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완전고용, 반군사주의(특히 EU의 군사행동 반대) 등을 주요 강령으로 하는 ‘반자본주의 좌파’가 있다. 현재 당 부대표인 반핵운동가 토비아스 플뤼거Tobias Pflüger가 ‘반자본주의 좌파’의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왼쪽의 ‘공산주의 포럼’을 들 수 있다. 현재 원내대표 둘 가운데 한 명인 사라 바겐크네히트Sahra Wagenknecht는 2009년까지 이 그룹에 속했으나 2010년 이후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격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해방좌파’라는 이름은 자유와 사회주의란 서로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주장으로부터 연원한다. ‘해방좌파’의 구성을 알리는 호소문이자 첫 공개적인 문서는 2006년 율리아 봉크Julia Bonk, 카티아 키프링, 카렌 라이Karen Lay(현재 당 부대표) 셋 이름으로 함께 낸 「자유와 사회주의 - 새로운 좌파 정당을 위한 해방적 사유의 단초들Freiheit und Sozialismus - Let's make it real. Emanzipatorische Denkanstöße für die neue linke Partei」이다. 다른 정파와 달리 ‘해방좌파’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노동 세계의 변화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며 기술혁신을 통하여

앞으로 더 급격하게 진행될 노동의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이와 같은 관심 속에서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해방좌파’의 핵심 강령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해방좌파’는 독일 좌파당의 기본소득 활동을 총괄하는 ‘연방활동그룹 기본소득BAG Grundeinkommen’의 주요 성원을 이루기도 한다. 좌파당의 조직 체계에서 ‘연방활동그룹’은 사업위원회 또는 부문위원회에 해당되는 기구인데, ‘연방활동그룹 기본소득’은 비당원에게도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해방좌파’에 속하는 주요 정치인으로는 카티아 키핑 이외에도 현재 좌파당 부대표인 카렌 라이 연방의회 의원, 브레멘 주의회 의원이자 브레멘 당 대변인인 크리스토퍼 슈페어Christoph Spehr 등이 있다. ‘해방좌파’의 중요한 결정은 6인으로 구성된 코디네이션 그룹에서 이루어지며, 카티아 키핑은 이 기구의 전 대변인이었으나 현재 이 역할은 카렌 라이 좌파당 부대표가 맡고 있다. 카렌 라이는 2009년에 연방의회에 진출한 재선 의원으로 2012년 이후로 부대표이며 2014년에 부대표로 재선되었다. 2016년에는 해적당 출신인 영화배우 안네 헬름Anne Helm이 좌파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해방좌파’ 코디네이션 그룹의 성원이 되기도 했다. 2012년 괴팅엔 당대회를 앞두고 ‘해방좌파’는 카티아 키핑 대표, 카렌 라이 부대표, 노르트하임-베스트팔렌 주의회 선거 좌파당 명부 1번이었던 카타리나 슈바베디센Katharina Schwabedissen, 얀 판 아켄Jan van Aken, 토마스 노르트Thomas Nord가 공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여, 당내 개량주의 진영과 당내 전통 사회주의 진영 모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명료하게 표현했다.

## 독일 기본소득운동의 개척자

개인적인 이력을 보면, 1978년생인 카티아 키핑 대표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드레스덴대학에서 슬라브 문학, 미국 문학, 공법을 전공하였고, 슬라브 문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결혼하여 딸이 하나 있다. 의회 활동 이외에 꼽을 수 있는 키핑의 가장 중요한 이력은 독일 기본소득운동의 개척자라는 점이다.

카티아 키핑은 2004년 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의 발기인이었으며, 2004년 1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의 대변인을 맡았다. 이러한 이력은 2006년에 울리아 봉크 및 카렌 레이(현 부대표)와 함께 기본소득을 주요 강령으로 하는 ‘해방좌파’를 창립하는 일로 이어진다. 2016년 2월의 언론 인터뷰에서 키핑은 “나는 15년 이상 기본소득을 위해 싸워 왔다”라고 토로하면서 2015년 8월의 빌레펠트 당대회 이후 좌파당 내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대폭 증대한 것은 커다란 발전이라고 말했다. 좌파당이 2012년 괴팅엔 당대회에서 채택한 강령은 노동 강제와 연동된 모든 종류의 소득보장에 반대하며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당내 논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빌레펠트 당대회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키핑은 토론회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키핑은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을 동일한 뿌리에서 바라보며,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을 연결시키는 관점이 특징적이다. 페미니즘과 기본소득에 관해서도 강연을 많이 해 왔다.



## 그 밖의 활동 - 이주자, 난민, 박해받는 사람들과의 연대

1975년 설립되어 탄압받는 좌파 활동가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 활동을 하는 ‘적색 보호(Die Rote Hilfe e.V.)’라는 단체가 있다. 2007년에 키핑은 좌파당 연방의원들을 규합하여 이 단체에 가입했다. 이러한 활동은 독일 정부의 감청 기관인 ‘헌법보호’가 2012년 독일 연방의 회에 피감청인 명단을 제출할 때 카티아 키핑 의원(당시 상임위원장)을 포함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큰 논란과 비난을 샀다.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주민과 난민에 관한 관심과 연대 활동이다. 시리아 내전의 여파로 한 해에 80만 정도의 난민이 독일로 몰려오고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같은 극우정당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0%를 넘을 정도로 급부상되던 2016년 초의 정국에서 키핑은 『대체 누가 자발적으로 난민이 된다는 말인가? 난민의 원인에 대한 한마디 말 또는 왜 우리 사회를 완전히 새로 구성해야 하는가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고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북콘서트를 열었다. 이러한 활동은 난민 문제로 폭발된 극우 공세에 정면 대결하고 좌파당의 기본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었다.

## 잡지 편집위원, 정책연구소의 대변인

키핑은 2008년 5월 이래로 VSA출판사에서 발간되는 『프라하의 봄 - 자유와 사회주의를 위한 잡지』(<http://www.prager-fruehling->

magazin.de/)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이 잡지는 ‘해방좌파’ 경향의 기관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론지가 아니라 광범위한 시사적인 문제를 다룬다.

2010년에 키핑은 ‘연대적 근대 연구소Institut Solidarische Moderne e. V’의 창립을 주도하고 이 연구소의 대변인을 맡았었다. 이 연구소는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전통적 사회주의, 전통적 녹색정치운동의 외부에서 새로운 녹색좌파정치의 공통 강령을 논의하고 연구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를 창립할 때 사회민주당의 헤르만 슈어 Hermann Scheer(1980년 이후 연방의원이었다고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적이 있으나, ‘연대적 근대 연구소’ 창립 직후인 2010년 10월 사망), 안드레아 입실란티Andrea Ypsilanti(현재 헤센 주의회 의원이고 주지사에 도전한 적이 있으며, 좌파당과의 연정을 주장했던 사회민주당 내 소수파), 녹색당의 스벤 지골드Sven Giegold(현재 녹색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 좌파당 현 부대표이자 재정정책 전문가인 악셀 트로스트 Axel Troost 연방의원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2010년 당시에 이처럼 초정파적으로 구성된, 하지만 각 당의 비주류 정치인들이 발기인으로 등장한 이 연구소의 목표는 2013 총선에서 사민당-좌파당-녹색당의 적-적-녹 연정을 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좌파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들 정치인 이외에도 연구소에는 엘마 알트파터Elmar Altvater 교수, 볼프강 네스코비치Wolfgang Nešković 전 대법관, 안드레아스 피셔-레스카노Andreas Fischer-Lescano 교수, 마하엘 오피엘카Michael Opielka 교수, 스테판 레제니히Stephan Lessenich 교수, 우테 칼비처Ute Kalbitzer 박사

등 저명한 좌파 학자와 지식인이 다수 참여했다. 2013년 적적녹 연정의 수립이라는 현실정치적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게 되자 이 연구소의 현안적 성격은 상당 부분 불명료해졌지만, 여전히 좌파 3당을 아우르는 대안적 연구소로 자리 잡고 있다(<http://www.solidarische-moderne.de/>).

다시 한 번, 독일 좌파당 카티아 키핑 공동대표와 관련된 이번 행사에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조교■**